

(붙임)

사 진 자 료



< 『고환경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현장 안내서』 >

	
I. 고환경 연구의 필요성	008
II. 조사 전 계획수립과 점검사항	012
III. 실재 수습 보관 방안	020
• 유기질 유물 보관의 일반사항	022
• 토양-토층 샘플링	024
• 유기질 유물의 실재 수습 방안	025
1. 목재	025
2. 씨와 열매	038
3. 미화식	052
4. 동물뼈	058
5. 사람뼈	067
IV. 토층의 이해	076
• 유적의 토층	079
• 토층 구성물질	088
• 토층의 관찰 기록	090
V. 고환경 복원을 위한 분석법	104
• 다양한 분석법	106
• 분석법의 원리와 현장에서의 주의점	107
VI. 고환경 연구의 방향	118
◎ 부록	122
•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요 동물 골격도	124
• 유적에서 확인되는 씨앗	130
• 참고 및 인용문헌	132
• 자문위원 및 집필진	136

<안내서 목차>

3) 발굴 현장의 임시 보존

(1) 세척 시의 주의점

① 건조한 상태

건조한 상태의 뼈는 물로 세척하지 않고 흙을 털어내는 정도로 보관해야 한다. 습도관리 및 보관을 위해서 흙을 제거해야 한다. 이때 물이 뼈 속으로 스며들면 중 발하면서 형태 등이 손상되므로 조심히 흙만 제거한다. 부득이 물로 세척해야 한다면 에탄올과 물을 5:5 정도로 섞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 들어 뼈에서 제거한 후, 표면을 털어주는 정도가 적당하다.



그림 42. 건조한 뼈의 세척 방법
1. 뼈의 상태 확인 2. 뼈에 따른 에탄올 농도 3~4. 흙부분만 에탄올로 약화 5~6. 약화된 흙 제거 7. 표면 털기 8. 에탄올이 묻은 스펀지로 뼈 표면 정리

② 습윤한 상태

습윤한 상태의 뼈는 세척 전까지 물 속에서 보관한다. 보관기간은 1개월 넘지 않아야 한다.

세척 시에는 표면의 흙은 스펀지 혹은 칫솔로 제거한다. 뼈 속의 흙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. 세척은 표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표면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정도가 적당하다.

거울철에는 세척된 물속에 보관하면, 어느 경우가 있어 보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

그림 43. 습윤한 동물뼈의 물세척
1. 유물 수습 후 즉시 물에 넣어서 보관 2. 물에 보관된 유물과 세척 도구 3. 칫솔로 표면의 이물질 제거 4. 스펀지로 표면 이물질 제거

<안내서 내용 일부>



<노출된 목재 유물 조사 모습>